

# Simulated Annealing을 통한 외판원 문제의 근사

20110 김채완

20514 유재원

# 목차

## I. 서론

## II. 문제 해결

1. 외판원 문제
2. Simulated Annealing
3. 설계

## III. 구현

1. Render
2. Simulated Annealing

## IV. 결과

# I. 서론

## 1. P, NP

P, NP 문제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.

어떠한 결정 문제 A를 다항시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 $A \in P$ 입니다.

Q) 크기 n의 수열 x가 주어질 때 x의 원소 중 t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라.

A가 위와 같을 때 문제의 답은 참 거짓 중 하나입니다.

따라서 결정 문제이며 아래와 같이 풀이했을 때  $O(n)$ 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문제는 P에 속합니다.

```
int solve(int n, int x[], int t) {  
    int answer = 0;  
    for(int i=0; i<n; i++) if(x[i] == t) answer = 1;  
    return answer;  
}
```

NP 문제는 문제와 답을 알고있을 때 이 답을 다항시간안에 검증할 수 있는

문제를 뜻합니다. 모든 NP 문제를 어떠한 문제 A로 환원할 수 있다면

$A \in \text{NP-hard}$ 이며  $A \in \text{NP-hard}$ ,  $A \in \text{NP}$ 를 모두 만족한다면  $A \in \text{NP-Complete}$ 입니다. NP-Complete 문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Circuit-Sat, TSP(외판원 문제), Subset-Sum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.

어떠한 문제가 NP-Complete임을 증명할 때에는 대체로 그 문제가 NP에 속하며 3-Sat 문제로 환원됨을 보입니다.

## 2. 근사 알고리즘

최적화 문제에 대해 최적해에 가까운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뜻합니다.

항상 최적해를 구해내는 것이 보장되지 않지만 그에 가까운 해를 구합니다.

이 프로젝트는 NP-Complete인 외판원 문제를 근사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고 이 과정을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## II. TSP

### 정의

TSP는 Traveling Salesman Problem의 약자로 우리말로 외판원 문제이며 가중치 있는 완전 그래프  $G = (V, E)$ 가 있을 때,  $G$ 의 한 정점에서 출발해 모든 정점을 방문하고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최소 가중치 합을 구하는 최적화 문제입니다.

### Solution 1) 동적 계획법

$D[now][state]$

:= 현재  $now$  정점에 위치하며 정점들의 방문 상태가  $state$ 일 때 최소 비용

위처럼 수열  $D$ 를 정의하여  $O(N \times 2^N)$ 시간에 최적해를 구합니다.

$N = 16$  정도가 이 풀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.

```
11 f(int x,int state){
    11 &ret=dp[x][state];
    if(ret!=-1)return ret;
    if(state==(1<<N)-1 and w[x][0]==0)return
ret=0x3f3f3f3f;
    if(state==(1<<N)-1 and w[x][0])return ret=w[x][0];
    ret=0x3f3f3f3f;
    for(int i=0;i<N;i++){
        if((state&(1<<i))==0 and w[x][i]){
            rmin(ret,f(i,state|(1<<i))+w[x][i]);
        }
    }
    return ret;
}
```

## II. TSP

### Solution 2) 분기 한정법

외판원 문제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직관적인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방문할 정점의 순서를  $N!$ 개 모두 나열해본다.
2. 나열한 모든 순서에 대해 비용을 더해본다.

위 풀이는 대략  $O(N \times N!)$ 의 시간복잡도를 가집니다.

$O(N \times N!)$ 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조금의 최적화를 진행합니다.

1. 다음 경로의 가중치 합의 상한선을 구한다.
2. 현재의 최적해보다 상한선이 작으면 이를 채택한다.
3. {1, 2}를 반복한다.

위의 분기 한정법을 이용하면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

여전히 빠르다 할 수 없습니다.

$N = 20$  정도가 분기 한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.

## II. TSP

### Simulated Annealing

Simulated Annealing, 담금질 기법은 고려해야할 상태공간이 클 때 Global Minima를 찾는 등 근사치를 찾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입니다.

경사하강법(Gradient Descent)은 현재 상태에서 평가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한 후 다음 상태의 후보 중 평가함수의 미분계수의 절대값이 낮은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며 나아가는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. 경사하강법은 극값이 다수 존재할 때 지역 최소점에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.

Simulated Annealing은 랜덤을 이용해 경사하강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Simulated Annealing의 기본적인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초기 상태를 만든다.
2. 다음 상태의 후보 중 하나를 골라 선택했을 때 이득이 될 확률 A를 계산한다.
3. 0%~100%사이의 랜덤한 확률(B) 뽑아서  $A > B$ 일 때 상태전이.
4. {2, 3}을 적당히 반복

다음 상태를 선택했을 때 이득이 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 근거합니다. 다음 상태를 선택했을 때 평가함수의 값 =  $e_2$ , 현재의 평가함수 값 =  $e_1$ 이라 정의합니다. (평가함수의 값은 클수록 좋은 상태)

$$P(e_1, e_2) = e^{(e_2 - e_1) / (K \times T)}$$

K는 볼츠만 상수, T는 온도를 의미하며 온도에 따른 에너지 분포 확률을 나타내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의 에너지에 평가함수의 차를 대입해 다음 상태로 전이했을 때 이득일 확률을 계산합니다.

$e_1 \leq e_2$ 인 경우 P는 항상 1이상이기 때문에 전이합니다. 이 때 지역 최소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가 1 미만일 때에도 랜덤하게 선택한 확률보다 크다면 전이합니다.  $e_1 > e_2$ 라면 e의 지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K, T가 작아질수록 P는 커집니다. ( $0 \leq P < 1$ ) 이 때 온도 T를 낮춰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 $e_1 > e_2$ 일 때 전이할 확률은 점점 낮아집니다.

## II. TSP

### 설계

생각해야할 것이 3가지 있습니다.

1. 인접 상태 정의
2. 평가 함수
3. 볼츠만 상수, 시작 온도, 온도 감률

### 1. 인접 상태 정의

일단 상태는 Sol 2와 같이 정점을 방문하는 순열로 관리합니다.

그렇다면 인접 상태로 정해볼만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.

1. 방문 순서에서 랜덤한 두 원소 swap
2. 방문 순서에서 랜덤한 인접한 두 원소 swap
3. 방문 순서에서 구간 뒤집기
4. k-opt (랜덤하게 구간 k개로 분할해 랜덤한 순서로 조립, 일반적으로 k=3)

인접 상태는 말 그대로 “인접한”, 가까운 상태가 좋습니다.

1번 방법은 교체되는 간선이 4개, 2번 방법은 3개,

3번 방법은 2개, 4번 방법은 k=3일 때 3개입니다.

따라서 3번 방법이 가장 좋은 정확도와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.

(각 방법을 직접 비교해본 결과는 [결과]에 정리해두었습니다)

## II. TSP

### 2. 평가 함수

TSP에서의 평가함수는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.  
TSP 최적해의 값이 작을 수록 좋으니  
(평가함수 =  $-1 \times$  최적해)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

### 3. 볼츠만 상수, 시작 온도, 온도 감률

$$P(e1, e2) = e^{(e2 - e1) / (K \times T)}$$

P의 값에  $(e2 - e1) / (K \times T)$ 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 
지역 최소에 빠지지 않도록 랜덤하게 이득이 아닌 경우도  
잘 살펴보도록 전이해야 합니다. 그에 맞게  $(e2 - e1)$ 의 기대값과  
 $(K \times T)$ 의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.



### III. 구현

#### 1. Render

- Canvas를 사용해 정점과 간선을 그렸고 Generator function을 사용해 상태 전이가 있을 때마다 간선을 새로 그렸습니다.
- 1 frame을 100ms로 설정해 상태전이를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.

```
function nodeDraw(n: number, mp: {x: number, y: number}[]) {
  const cvs = document.getElementById("asdf")! as HTMLCanvasElement;
  const ctx = cvs.getContext('2d')!;
  const __nodeDraw = (p: number, q: number) => {
    ctx.beginPath();
    ctx.arc(p * R + BASE, q * R + BASE, 10, 0, Math.PI * 2, false);
    ctx.stroke();
    ctx.fillStyle = 'blue'; ctx.fill();
  };
  for(let i=0; i<n; i++) __nodeDraw(mp[i].x, mp[i].y);
}

function edgeDraw(mp: {x: number, y: number}[], edges: Array<[number, number]>) {
  const cvs = document.getElementById("asdf")! as HTMLCanvasElement;
  const ctx = cvs.getContext('2d')!;
  const __edgeDraw = (edge: [number, number]) => {
    const currentMps = [mp[edge[0]], mp[edge[1]]];
    ctx.beginPath();
    ctx.moveTo(BASE + currentMps[0].x * R, BASE + currentMps[0].y * R);
    ctx.lineTo(BASE + currentMps[1].x * R, BASE + currentMps[1].y * R);
    ctx.strokeStyle = 'black';
    ctx.lineWidth = 4;
    ctx.stroke();
  };
  for(const edge of edges) __edgeDraw(edge);
}
```

### III. 구현

#### 1. Render

```
function getCanvas() {
  const cvs = document.getElementById("asdf")! as HTMLCanvasElement;
  const ctx = cvs.getContext('2d')!;
  ctx.clearRect(0, 0, cvs.width, cvs.height);
}

function render
  (
    n: number,
    mp: {x: number, y: number}[],
    edge: Array<[number, number]>
  )
{
  getCanvas();
  edgeDraw(mp, edge);
  nodeDraw(n, mp);
}

function frame
  (
    gen: Generator<Array<[number, number]>, void, unknown>,
    n: number,
    mp: {x: number, y: number}[]
  )
{
  const edge = gen.next();
  if(edge.value)
    render(n, mp, edge.value);
  setTimeout(() => {
    frame(gen, n, mp);
  }, 100);
}
```

### III. 구현

#### 2. Simulated Annealing

`dist(i, j)` = 정점 `i`와 정점 `j`의 거리

`Swap(i, j)` = 방문순서[`i`, `j`]를 flip

`cost()` = perm에 저장된 순서로 방문할 때 비용

`edge` = frame마다 그릴 간선의 목록을 저장

[구현]의 코드는 구간 flip로 상태전이를 진행하는 구현입니다.

### III. 구현

#### 2. Simulated Annealing

```
67 function* simulated_annealing(n: number, mp: { x: number, y: number }[]) {
68   let T = n / 2;
69   const K = 1;
70   const D = 0.9999;
71   let e1 = 0;
72   let e2 = 0;
73   const perm: number[] = [];
74   mp.sort((a : {x : number, y : number}, b : {x : number, y : number})=>a.x - b.x);
75   for (let i = 0; i < n; i++) perm[i] = i;
76   const getidx = (idx: number) => { return (idx + n) % n; };
77   const dist = (p: number, q: number) => {
78     p = getidx(p); q = getidx(q);
79     const a = mp[perm[p]].x - mp[perm[q]].x;
80     const b = mp[perm[p]].y - mp[perm[q]].y;
81     return Math.sqrt(a * a + b * b);
82   };
83   for(let i=0; i<n; i++) for(let j=i+1; j<n; j++) T = Math.max(T, dist(i, j));
84   const Swap = (p: number, q: number) => {
85     p = getidx(p); q = getidx(q);
86     if (p > q) {
87       const tmp = p;
88       p = q;
89       q = tmp;
90     }
91     for (let i = 0; p + i < q - i; i++){
92       const tmp = perm[p + i];
93       perm[p + i] = perm[q - i];
94       perm[q - i] = tmp;
95     }
96   };
97   let edge: [number, number][] = [];
98   e1 = 0;
99   for (let i = 0; i < n; i++) e1 += dist(i - 1, i);
100   const cost = () => {
101     let ret = 0;
102     for(let i=0; i<n; i++) ret += dist(i - 1, i);
103     return ret;
104   };
105   for(let tc=0; tc<IT; tc++) {
106     for(let i=0; i<1000; i++) {
107       const p: number = Math.floor(Math.random() * (n));
108       const q: number = Math.floor(Math.random() * (n));
109       e1 = cost();
110       Swap(p, q);
111       e2 = cost();
112       const newE : [number, number][] = [];
113       for(let i=0; i<n; i++) {
114         newE.push([perm[getidx(i - 1)], perm[i]]);
115       }
116       const x: number = Math.exp((e1 - e2) / (K * T));
117       if (e2 < e1 || x >= Math.random()) edge = newE;
118       else Swap(p, q);
119       T *= D;
120     }
121     yield edge;
122   }
123 }
```

## IV. 결과

1. 화면의 크기 상  $N = 1000$  정도까지만 테스트해봤으나  
 $N = 1000$  일 때에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.

2. {

인접한 두 원소 swap,

랜덤한 두 원소 swap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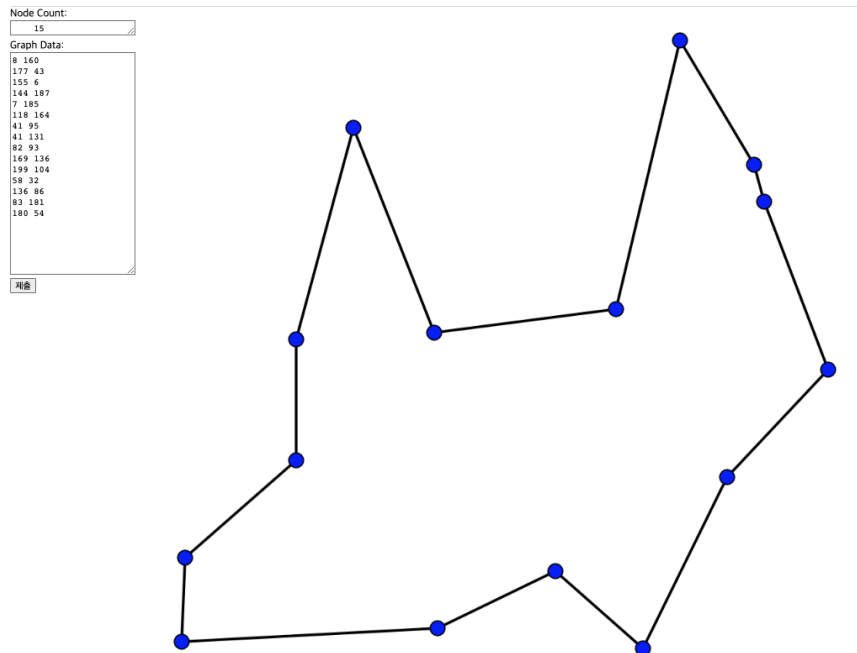
K-Opt,

랜덤한 구간 flip

}

순으로 랜덤한 구간 flip이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과  
정확도를 보였습니다.

3. 시연 결과



## IV. 결과

